

글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에 나타난 전(傳) 양식 활용을 중심으로 -

김 성 진*

〈차 례〉

1. 문제 제기
2.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
 - (1) 일탈과 창의성의 경계
 - (2) 용사신의(用事新意)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3. 전(傳) 양식 계승으로서의 「거룩한 생애」
 - (1) 일대기 형식으로서의 단편
 - (2) 압축과 생략의 극대화
 - (3) 묘사가 최소화된 서사의 추구
4. 전(傳) 양식 변용으로서의 「거룩한 생애」
 - (1) 역사의 궤적 기록
 - (2) 집단적 주체의 형상화
5. 결론 - 양식의 기능 전환과 법고창신(法古創新)

1. 문제 제기

최근 글쓰기 논의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창의적 표현의 특징과 달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표현에서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 경인교대 강사

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현상은, 갈수록 개인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제도에 의한 주체의 구성을 강조하는 이론의 전개 속에서 '창의성'의 기원이 순수 개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습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개인의 '기발함'보다는 창의적 표현의 사회적 근원을 분석하려는 방향으로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관습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의 관계를 논의한 최근의 중요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핀 뒤, 관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글쓰기가 전통 양식에 대한 '기능 전환'을 강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문제 의식 속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특히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가 전(傳) 양식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소설 양식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글쓰기가 구체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한다.

2.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

(1) 일탈과 창의성의 경계

관습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의 관계를 다룬 논문에서 김정자는 창의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별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¹⁾

- ① 관습 안에서의 창의적 표현
 | 관습 밖에서의 창의적 표현
- ② 새로운 관습의 창조
- ③ 일탈적 표현

1) 김정자, 「팔지의 표현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1, 114면

이는 관습 대 창조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인식을 재편하고 있다. 글쓰기란 관습과 창조 사이의 줄타기로서, 관습을 적절히 활용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자는 ③을 창의적 표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③이 창의적 표현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의미의 전달에 문제가 있는 '일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일탈'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며 '일탈'이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는 점이다. '일탈'이란 자명한 것 같아도, 문장의 단위를 넘어선 한편의 텍스트를 막상 일탈이라 판정하기란 쉽지 않다. "관습적 언어 사용이 과도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표현의 매력, 긴장감, 효과 등이 결여되고, 일탈적 언어 사용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는 발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수신자는 이해할 수 없게 된다."²⁾는 구절을 보면, 김정자는 일탈과 용인의 경계로 수신자의 '이해 가능성'을 설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수신자의 '이해 가능성'은 수신자의 능력과 발신자와 수신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대단히 유동적인 기준이다. 만일 이상의 시 『오감도(鳴瞰圖)』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제시된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이해 지평을 넘어서 있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오감도』는 발표 당시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기도 하다.³⁾ 한편 '전위 문학'의 목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형성되는 약호 체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일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해되기보다는 '이해'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2) 김정자, 앞의 논문, 109면.

3)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가 연재되던 당시 독자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 지고도 마음놓고 자멸 작정이나.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아서 시 만들 줄 인다고 잔뜩 믿고 굴러 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상, 『이상수필전작집』, 갑인출판사, 1977, 230면.

하는 전위 문학의 목표가 관습적인 약호 체계에 대한 점검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사정이 이렇다면 ②와 ③을 뚜렷이 구별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문제를 문학의 진화 혹은 변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사고할 경우 ②와 ③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문학의 발전 혹은 진화 과정에서 수사학적 혁신의 비중은 막대하다. 그런데 수사학적 혁신이란 철저히 우발적이며 우연적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우발적 새로움이 사회에 받아들여짐으로써 일종의 관습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모종의 '필연성'이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양식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은 비록 그것이 항상 과거 형식과 과거 양식에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또한 그렇다고 내재적인 변증법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만도 아니다. 모든 새로운 양식은 삶의 사회적, 역사적 필요와 더불어서 대두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물일 것이다.⁵⁾ 다윈 식으로 말하자면 '돌연변이'의 탄생은 통제 불가능한 우연의 영역이지만, 그것의 지속적 확산은 자연의 선택이라는 필연성에 의해 결정된다.⁶⁾ 결국 '일탈적 표현'을 창의적인 표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은 그 속에 담긴 선의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가능한 글쓰기 상의 수많은 '변이'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관습 창조의 동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4) 야콥슨이 정식화한 의사소통 모델을 이용해 말하자면, '전위 문학'은 일종의 '메타 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야콥슨의 의사소통 모델에서 '메타 언어적 기능'에 대한 설명은 로만 야콥슨(신문수 번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학지성사, 1989, 58-61면을 참조할 것.

5) 영국 소설의 발생기에서 서간체를 도입하여 커다란 역할을 했던 리차드슨의 경우 사랑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편지 쓰기를 즐겼던 개인의 성격이라는 '우연'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영국에서 서간체가 주도적인 소설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내밀한 공간과 사적 개인의 탄생이라는 '필연성'에 의한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언 와트(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열린책들, 1988, 240-244면을 참조할 것.

6) 우발성과 선택의 변증법에 의한 진화를 다윈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화사적인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Franco Moretti, On Literary Evolution, *Sign taken for Wonders*, pp. 263-265을 참조할 것.

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습의 창조와 일탈적 표현 사이에 만리장성을 세우는 것보다는 후자에 새로운 관습의 창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 '일탈적 표현'에 대한 보다 온당한 대접이 될 성싶다.

(2) 용사신의(用事新意)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관습 안에서의 창의적 표현'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 조희정의 논의는 조선 세종 시대 과거 시험의 글쓰기를 자료로 하여, '지배적 문해력'과 '생성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⁷⁾ 여기서 새로운 것은 지배적 문해력과 생성적 문해력을 단계적 관계이자 동시적인 관계로 파악하지는 제안이다. 생성적 문해력은 지배적 문해력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은 연속성을 갖는 단계적 관계로 파악된다. 그리고 습득된 문해력은 그 활용 여부에 따라서 지배적 문해력으로 그대로 발현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생성적 문해력으로 발현될 가능성 역시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이 둘은 동시성을 갖는 관계가 된다.

그런데 조희정은 김정자의 논의에 대해 관습 안에서의 창의적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전범의 설정'에 의해 관습 안에서의 창의적 표현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용사의 시학'이 자리잡고 있다.⁸⁾ 용사(用事)란 시문 창작에 있어서 전고(典故)나 사실을 인용하고 활용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문 창작에서 신화·전설·역사 속의 이야기 및 경서(經

7) "한 사회의 공공적 영역의 의사소통을 위해 개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문해력"이 지배적 문해력이며, "개인들이 지배적 문해력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문해력"이 생성적 문해력이다.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2, 27면.

8) '고전 표현론' 일반과 '용사의 시학'이 가지고 있는 밀접한 관련에 대해서는 김성진, 「문학 작품 읽기 전략으로서의 비평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제9호, 2002 여름을 참조할 것.

書) 등의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⁹⁾

최근 글쓰기와 관련된 용사 논의의 향방은 용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新意)'의 생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몇몇 논자는 용사와 신의를 대립 관계로 파악하기도 하지만,¹⁰⁾ 용사와 신의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바탕의 논의라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다.¹¹⁾ 관습과 창의성을 대립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희정의 견해 역시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필자 역시 용사가 원천적으로 신의를 봉쇄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용사가 근본적으로 표현의 '효과'를 추구하는 수사학이나 기교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희의 『문심조룡』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은 이러한 필자의 '심증'에 '물증'을 제공한다.

“전교의 사용이 요령을 얻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유하면 한치의 굴대빔장이 바퀴를 제어하고 한 자 되는 지도리가 관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중략) 옛것을 사용하여 들어맞으면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¹²⁾

용사를 “경서나 사서 또는 시가의 시문이 가지는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을 둘 셋의 허위에 집약시켜서 원관념을 보조하는 관념 소생이나 관념 배화에 원용하는 수사법”¹³⁾이라고 정의하거나, 용사는 표현 기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론의 차원에서는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글쓰기, 나아가 '관습을 바탕으

9)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2, 178면.

10) 최신희, 「시화에 나타난 용사와 그 변이」, 『고전문학연구』 제1권, 1971.

11) 자세한 사항은 정대립, 「新意와 用事」,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1986을 참조할 것.

12) 이병한 편저, 앞의 책, 179면.

13) 최신희, 앞의 논문, 117면.

로 한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용사신의(用事新意)'보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용사신의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기교나 수사학에 국한되지 않는 태도와 발상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 의식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용어 '법고창신'을 사용하는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¹⁴⁾

법고창신은 연암(燕巖) 박지원이 확립한 문장론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용어로서 고문(古文)을 본받되 이를 현대에 맞게 변용시켜야 하며, 새 것을 만들더라도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⁵⁾ "하늘과 땅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그 광휘는 날마다 새롭다."¹⁶⁾는 전제에 설 경우, 옛글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유전하는 '삼라만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신에 있다. 연암이 법고파(法古派)와 창신파(創新派)의 대립을 비판하면서, 도(道)를 구현하기 위한 인식과 표현의 방법으로 '옛것을 근거로 하여 변화를 파악한다'는 법고지변(法古知變)과 '새로운 것을 창안하여 그것이 법도에 들어맞게 한다'는 창신능전(創新能典)을 제안한 이유도 그때문이다.¹⁷⁾ 법고창신이란 이 둘을 배타적인 관계나 선택적인 관계로 파악하

14) 이런 점에서 '문제 해결'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목표 달성 여부라는 '도구적 합리성'에 경도되고 있는 글쓰기 논의를 반성하고 글쓰기 상황을 둘러싼 인간론적 함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논의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 문영진, 『글쓰기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반성』, 『한국 근대산문의 읽기와 글쓰기』, 소명출판사, 2000.

15) 법고창신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56-69면을 참조하였다.

16) 정민 편,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 162면.

17) 박지원은 <초정집서>에서 '翻新하여 교묘하기보다는 法古하여 고루함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후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발언의 진의는 재주가 너무 승한 박제가에 대한 충고에서 나왔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 159-175면. 그렇지만 法古를 강조하여 박지원을 고문가(古文家)로 파악하거나 翻新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문체의 창안자로 보는 경향이 팽팽한 것을 보면 박지원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에 대

지 않고, 양자의 통일성을 파악함으로써 한층 고차적인 표현과 인식의 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신을 뜻한다.¹⁸⁾

이제 문제는 다시 관습 안에서 창의성이 획득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고'(法古)를 통한 '창신'(創新)이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법고와 창신의 관계는 무엇인가이다. 여기서 관습과 창의성이 '단계적 관계'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이 둘이 연속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법고'에서 '창신'에 이르는 과정에는 '단절' 혹은 '질적 비약'의 계기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단절'과 '비약'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모방을 통한 창조가 아닌 매너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범, 더 나아가 잘된 글을 모방한다고 해서 저절로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둘이 동시적이라는 견해 역시 관습과 새로움을 전적으로 대립시키는 논의를 비판하는 데는 유용하나, 습득된 문해력이 어떤 계기를 통해 때로는 지배적 문해력으로 그리고 때로는 생성적 문해력으로 발현되는지를 해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비록 생성적 문해력의 구성 요소로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을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사실 관습적인 '표현'에 창의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우회한 것에 가깝다.¹⁹⁾ 새로운 내용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형식과 스타일을 요구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은 변증법적 사유의 기본 공리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조희정 역시 '용사신의'를 통해 글쓰기의 새로움에 접근

해서는 이지호,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1997을 참조할 것.

- 18) 계간지 『창작과 비평』은 근대를 완수하면서 근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신의 이념을 대변하는 구호로 법고창신을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신은 특히 최원식,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7에 잘 드러난다.
- 19) 조희정은 지배적 문해력의 구성 요소로 내용에서는 전범 텍스트를 그리고 형식에서는 양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생성적 문해력에서는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라는 다분히 '내용'에 가까운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희정, 앞의 논문, 72-106면을 참조할 것.

하고 있는 이전 논의의 한계를 시원스레 넘어서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고가 글쓰기 주체의 사고와 표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근·현대에 접어들어 변화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중세인의 감각은 근대인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와트에 따르면, 세익스피어 시대만 해도 트로이 시대, 로마 제국 시대, 튜더 왕조 이 셋은 그 어느 시기도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당대와 이 과거의 시기들이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²⁰⁾ 어떤 시내이든 시간의 수레바퀴가 영원히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역사관이야말로 중세의 보편적 시간관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간관을 배경으로 파악된 전고와 '모든 고정된 것이 대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변화를 본질로 하는 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그것이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전고의 위상은 근대적인 시간관과 역사관의 개입에 의해 변화했다.²¹⁾ 전고는 활용되고 변환되어 새로운 의미와 접속하게 될 때, 생명을 잃은 실

20) 영어에서 '시대착오'(anachronism)라는 단어가 세익스피어 사후 3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니, 중세인의 시간관에 호르고 있는 모든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연속감의 정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언 와트(전철민 역), 앞의 책, 1988, 34면.

21)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과거가 아니라 논리적 과거 다시 말해 '이념형'으로 '유토피아'를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격을 측정하려는 '유토피아 회복'의 논리는 탈역사적 사고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순 시대'나 '고대 그리스'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역사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헤겔은 분명 역사주의자이지만, 현실 역사의 전개를 절대정신이 외화되었다가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귀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철학은 당시 프러시아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변호론으로 전략하는 씨앗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루카치(김재기 역), 『청년 헤겔 1』, 동녘, 1986을 참조할 것. 다른 한편 노년의 루카치가 자신의 초기 저작 『소설의 이론』을 끈질기게 부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 책이 '문학적 항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정성(實定性)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원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의 계기를 강조하는 것이 '법고창신'의 문제의식이다.²²⁾

본고에서는 법고창신의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현기영 작 『거룩한 생애』를 살펴 보았다. 이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기영의 글쓰기가 달성한 새로움은 전통 양식에 대한 '기능 전환'을 통해 가능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놓은 '관습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글쓰기'의 방법과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傳) 양식 계승으로서의 『거룩한 생애』

(1) 일대기 형식으로서의 단편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잠녀의 딸로 태어난 주인공 '간난이'의 일대기를 그린 단편 소설로서, 일제 시대에서 4·3사건에 이르는 역사적 격변의 시기를 살아갔던 간난이와 주변 인물의 일생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거룩한 생애』의 중심 화소(話素)는 모두 간난이의 일생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작가는 간난이의 삶을 어떠한 시간적 변경없이 연대기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잠녀(潛女)의 딸로 태어남
- (2) 어부였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 (3) 13세에 처음으로 물질을 배우고 17세에 상궁 잠녀가 됨

22) 창작 교육 영역에서 김창원은 논어의 述而不作을 자세히 논하는 가운데 유사한 문제의식의 일단을 보여준 바 있다. 김창원, 「述而不作」에 관한 질문: 창작개념의 확장과 창작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제2호, 1998년 여름.

- (4) 20세에 김직원 장손에게 시집을 감
- (5) 고된 시집살이와 나이 어린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고생을 함
- (6) 시어머니와 남편의 인정 속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림
- (7) 잠녀 조합 대표 자격으로 관리원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이십일 구류를 삶
- (8) 출산 직후 자식이 병으로 죽기를 거듭하다 세 번째 자식이 살아남아 호적에 올림
- (9) 일제 말 징용 대신으로 남편과 함께 장전으로 물질을 떠남
- (10) 해방을 맞아 삼팔선을 넘어 제주도로 귀향
- (11) 4·3 사건의 와중에서 남편이 토벌대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함
- (12) 일제 시대 구류 기록 때문에 '빨갱이'로 몰려 토벌대에 총살당함

여기서 간난이의 행적은 약 30여 년의 시간에 걸쳐 전개되는데, 삼십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감당하기에는 30여 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게다가 이 소설에서 간난이의 삶과 결부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의 질로 보아도 일제 시대, 해방 그리고 미군정과 4·3 사건에 걸치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만일 작가가 간난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면 가히 장편 소설, 나아가 대하 소설이 나올지도 하다. 이처럼 『거룩한 생애』는 확실히 우리가 익숙한 근대 단편 소설에 관련된 통념을 벗어나고 있는 이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거룩한 생애」는 전(傳)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 서사 양식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특징은 그다지 생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짧막하게 서술한 양식으로 대개 '인정기술(人定記述) - 행적부 - 논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인정기술은 입전 인물의 집안, 신분, 성명, 거주지 등에 대한 서술로 일종의 신원 확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거룩한 생애』의 시작부이다.

“거칠게 밀리는 파도무리가 흰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현무암의 검은 해안선. 그 해안선을 한입 덩석 물어 떼어놓기라도 한 듯 작은 섬 하나 떨어져나가고 우뚝 들어간 곳에 우뚝개라는 어촌이 자리잡고 있었다. 삼백여 호수의 제법 큰 마

을이었다. 그 섬이 우묵개를 향해 진입해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해서 솟섬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음양이 잘 어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을 앞 바다에 해물 생산이 좋았다. 토지라고 해야 하나같이 가뭄 타는 돌짜밭들뿐인지라 그 섬이 없었더라면 마을이 그렇게 번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수리에 조금 풀빛을 이고 있을 뿐 볼모의 바위투성이로만 보이는 그 섬은 회안하게도 물 속에서 해물이 잘 자라는 기름진 밭을 가꾸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연못이 생기면 개구리들도 생기게 마련이니, 그래서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잠녀들이 많았다.

그렇게 그녀는 잠녀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생가는 갯가와 바로 맞붙어 있어서 종일 바다 물결 소기가 가득 실려 떠나지 않는 야트막한 초가집이었다. 해풍을 막으려고 두 겹의 돌담을 지붕 높이까지 쌓아올렸는데, 밀물 때면 돌담 밑굽까지 수면이 차올라 거기에 파래가 밀생하고 참게들이 돌담 구멍을 들락날락거렸다.(현 기영, 『거룩한 생애』, 김학철·최일남·이호철 외, 『우정 반세기』, 창작과비평사, 1991, 204면. 앞으로 인용문의 경우 이 책의 페이지만 적기로 한다.)

조금 길지만 이 부분을 인용한 까닭은 소설의 도입부가 위에서 설명한 전(傳)의 '인정기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에서는 인정기술이 대단히 중시되는데, 그 이유는 전의 본령이 실존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전 인물의 가계나 성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하다못해 '不知何許人'이라는 말이라도 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²³⁾ 『거룩한 생애』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자연 배경에 대한 묘사가 소설의 도입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러한 묘사를 통해 서술 대상 인물의 출생지이자 거주지인 '우묵개'의 '야트막한 초가집'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물 속에 해물이 잘 자라는' 배경에서 집안 대대로 잠녀로 살아가게 되는 신분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요약한 『거룩한 생애』의 중심 화소에서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의 '행적 기술'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간난이의 성장과 죽음에 이르는 생의 전 과정을 삼십 페이지 남짓한 분량에 담아내고 있다. 물론 이 정

23)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21면.

도의 분량도 초기 전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제시대에서 해방 직후에 이르는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자세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적은 분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간난이 생애에서 중요한 삶의 국면만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양적으로 확장된 '행적 기술'에 가까워지게 된다.

『거룩한 생애』는 간난이의 죽음에 아무런 논평을 붙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전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간난이와 그녀의 시대에 대한 논평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염라대왕의 명부에 이미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기상천외하게도 그것은 왜정 때 만들어진 경찰기록이었다. 칠 팔 년 전 왜놈 조합서기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십일 구류 산 것이 기록에 올라 남편과 한통속의 사상 불온자로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죄였다. 일제에 의해 불온분자로 찍혀 있었던 것이었다. 왜놈들한테 대항한 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왜 죄가 되느냐고, 간난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디차게 비웃었다. 삼팔선이 그어진 때 우연히 이복에 놓여 스무날 가랑 머물렀던 것을 놓고, 나쁜 사상을 가지기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래 이복에 머물렀느냐는 것이었다. 삼팔선 넘을 때 조선인 통역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간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이런 세상에 구차하게 목숨 붙여 살아 무엇하랴.”(230)

여기서 화자는 ㉠을 통해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을 통해 간난이의 무고함을 반어적으로 응변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화자는 ㉢처럼 자신의 목소리와 간난이 목소리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진실이 뒤집힌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숨어 있는 논평을 배경으로 했기에 “그날 저녁 무렵, 바닷가 눈 덮힌 모래밭에서 간난이를 포함한 여덟 명의 우묵개 사람들이 일제히 불 뿜는 총구 앞에 쓰러졌다.”(231)와 같은 담담한 서술이 더욱 절실한 울림을 갖게 된다.

(2) 압축과 생략의 극대화

「거룩한 생애」에서 두드러진 서술상의 두 번째 특징은 간난이의 일대기에서 간난이의 삶을 바꾸어놓는 중요한 결절점만을 선택한 뒤, 그것을 극도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점이다.

“간난이는 이년 동안 내리 육지로 물질 다녔다. 첫해엔 대마도, 이듬해엔 주문진에 갔다. 타관까지 낚선 바다는 정도 안 붙고 무엇보다 물이 찼다. 몸이 어찌나 시리던지 물에서 나와 이빨을 딱딱 맞히면서 배 위의 화덕 불에 언 몸을 벌겁게 익히노라면 탁탁 튀는 불똥이 맨살에 닿아도 뜨거운 줄을 몰랐다. 그녀의 발등엔 화상 자국이 거뭇거뭇 찍혀졌다. 물결 높아 물질을 쉬는 날에도 그녀는 세든 주인 집 농사일을 도우며 일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이년간의 살 깎이는 고생 끝에 그녀는 기어코 부친이 잃어버렸던 발을 되찾고 말았다.”(207면)

위에서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간은 2년이다. 아버지가 죽고 간난이가 가장이 되어 대마도와 주문진에서 물질 끝에 부친이 잃어버렸던 발을 되찾게 되는 이 2년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단편 소설 한 편을 쓸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화자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첫해엔 대마도, 이듬해엔 주문진에 갔다.’와 ‘그녀의 발등엔 화상 자국이 거뭇거뭇 찍혀졌다.’는 문장 둘로 압축하고 있다. 나머지 문장 역시 그 동안 간난이가 반복해야 했던 힘든 노동의 서술에 바쳐지고 있을 뿐이다. 그 기간 어찌 간난이라고 해서 휴식의 시간과 다른 상념의 시간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작가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이면의 사정을 대부분 생략하는 것은 전의 대표적인 서술 특징이기도 하다. 열녀전의 하나인 『절부조씨전(節婦曹氏傳)』의 경우 입전 인물 조씨의 대하적인 전(全)체험을 기본적인 요점만을 극도로 요약하여 서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 하나의 사건 단락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한 두 개의 문장으로 최대한 압축된다.²⁴⁾ 이런 서술의 특징은 「거룩한 생애」 전편에 걸쳐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이처럼 사건에서 세부적인 디테일과 중요하지 않은 결가지 이야기를 생략한 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거룩한 생애』는 압축과 생략을 중심으로 하는 시적 형상화 원리에 근접하게 된다.²⁵⁾ 그것은 『거룩한 생애』가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디테일을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삶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포에지를 포착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적인 포에지는 모든 서사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거룩한 생애』는 일상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에 접근하기보다는 '비약' 혹은 '도약'을 통해 삶의 포에지에 직접 도달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시적 형상화 원리인 '상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24) (1) 충경왕(忠敬王)이 강화로부터 수도 송도로 환도하였다.

(2) 장군 홍문계 등이 권신들을 죽이고 복정하였다.

(3) 권신의 사병들이 승화후를 옹립하고 반역을 꾀하여 신하와 군사들을 물고 탐라로 갔다.

(4) 적이 가는 도중에 제상으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벼슬을 정하여 조에게도 별장의 벼슬을 주었으나 계교로써 탈출하여 송도로 돌아갔다.

(5) 뒤에 적들이 패하여 남은 자들은 모두 원나라 병정들에게 끌려 갔다.

(6) 조는 돌아와서 탐라를 치러갔다가 신묘년 겨울에 죽었다

(7) 조씨는 그때 나이 십삼세로 한보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를 낳았다.

(8) 시아버지는 일본으로 정벌갔다가 신사년 여름에 죽었다.

(9) 신묘년 여름에는 한보가 전쟁 중에 죽었다.

(10) 조씨는 과부가 되어 언니에게 가서 살다가 딸이 시집간 뒤로 딸을 따라갔다.

(11) 딸이 1남 1녀를 낳고 요절하므로 그의 외손자와 외손녀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조태영, 「傳」 양식의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39면.

25) 신승엽은 이를 '시적 민중성의 성취'라 평가한 바 있다. 신승엽, 「시적 민중성의 높이와 산문적 현실 분석의 깊이」, 『창작과 비평』 1994년 겨울호.

26) "삶의 내적 시는 투쟁하는 인간들의 포에지이며, 현실의 실천 속에서 인간들이 맺게 되는 투쟁적인 상호 관계의 포에지이다. 이 내적인 포에지 없이 진정한 서사문학이란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서사 구성 원리도 생각될 수 없다." G. Lukács, *Erzählen oder Beschreiben, Probleme des Realismus I*, Luchterhand, 1971, S.212.

(3) 묘사가 최소화될 서사의 추구

『거룩한 생애』에서 묘사는 최소화되며 종종 눈에 띈다고 해도 이야기의 '주기능 단위'²⁷⁾에 국한된다. 사실 묘사는 본질적으로 근대적인 서술 수단이다. 18세기의 소설은 묘사에 관한 한 이는 바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설령 묘사가 등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미미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²⁸⁾ 묘사가 중요해진 까닭은, 근대에 들어와 인물의 개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자질구러한 디테일을 전달함으로써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생애』는 이런 묘사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여행에 지칠 대로 지친 간난이네는 근처의 조그만 여관방에 들어 하룻밤을 달게 잔 다음, 다시 기차를 타고 귀향길에 올랐다. 콩나물시루 속 같은 차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승객들끼리 건국 문제, 시국형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져 있었다. 남편이 토론에 한몫 끼어 들고, 간난이도 삼팔선 넘어온 값을 하느라고 쫓국 귀를 세워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흥분해서 목청을 돋구었다. '왜놈들이 물

27) 바르뜨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로 기능 단위와 징조 단위를 설정한 뒤, 기능 단위를 다시 주기능 단위(핵단위)와 촉매 단위로, 징조 단위를 순수한 징조 단위와 정보 단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주기능 단위는 줄거리 구성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 단위를 뜻한다. 톨랑 바르뜨,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 김치수 편저, 『구조주의와 문학 비평』, 기린원, 1989, 101-111면.

28) 루카치에 따르면, 서사와 맺는 관계에 따라 묘사는 두 가지 위상을 지닌다. 루카치는 작가가 사회의 성립 과정에 능동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행위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드러내는 줄거리를 창조하는 방법을 '서사'라고 부른다. 이러한 '서사'의 내적 구성 요소로서의 묘사는 18세기에 들어서 개인과 계급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현실의 일상성과 산문성을 '서사적 줄거리'에 담아내기 위해 사용된 기법을 뜻한다. 이 경우 묘사는 '서사와 대립되는 동일한 위상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 서사의 한 계기에 지나지 않았던 묘사가 자립화되어 '서사에 대립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묘사는' 작가가 사회를 관찰하는데 머무름으로써 행위의 서사적 형상화를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묘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묘사는 서사의 한 내적 계기로서의 묘사를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G. Lukács, *op.cit.*, S.203~208.

리갔는데, 왜 미국놈 소련놈은 아직도 남아 있나' '정치 하겠다는 놈들이 나라 세우는 일을 왜 제 나라 백성한테 물어보지 않고 미국놈 소련놈한테 물어보나'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게 속지 말아, 일본놈 일어난다' 했다."(225)

일반적인 근대 단편 소설이라면 마땅히 조그만 여관방의 디테일에 대한 묘사가 동반되었을 것이며, 시끄러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기차안의 다양한 풍경이 다음과 같이 파노라마처럼 제시되었을 것이다.

"회색 외투를 좀 퇴폐적으로 어깨에만 걸친 그 여인은 지금 제가 여러 사람의 시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제 버릇인 양 이편 손으로 퍼머넌트를 쓸어들려 연방 귀바퀴에 걸치며 여전히 창 밖만을 내다보고 있다. 내다본다지만 창 밖은 벌써 어두워 달힌 검유리창에는 켈녀의 진한 자줏빛 저고리 그림자가 이중으로 비치어, 해글어 놓은 화롯불같이 도리어 이편을 반사하는 것이었다. 이런 형용은 좀 사치한 것 같지만, 그런 화롯불 위에 올려놓은 무순 백자 그릇 같이 비추인 켈녀의 얼굴 그림자 속에 빨갱게 켜지는 담뱃불을 불어뜨리는 듯이 그 여인은 동그렇게 모은 입술로 연기를 뿜고 있었다."²⁹⁾

『장삼이사』에서는 주요한 움직임은 작은 움직임으로 나누어 서술하거나, 특정한 움직임 주변에 놓인 사람이나 사물들의 구체적 모습이나 동반된 다른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이 두드러진다.³⁰⁾ 그러나 「거룩한 생애」에서 이런 식의 묘사는 최소화된다. 앞서 인용한 장면의 경우 겨우 '콩나물시루 같은'이라는 관습적인 비유 하나가 제시되었을 뿐이다. 다른 장면에서 혹 묘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주위 환경에 대한 서술이 위에서 인용한 『장삼이사』와 같은 단순 묘사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소설 시작부처럼 자연에 대한 묘사, 주위의 분위기에 대한 묘사는 중요하거나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식의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

29) 최명익, 「장삼이사」, 최명익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24권, 동아출판사, 1995, 125면.

30) 이는 고전 소설과 대비되는 현대 소설의 일반적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하다. 배수찬, 「고전 국문소설의 서술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1, 47면.

에만 도입된다.

이처럼 묘사가 최소화된 서사의 추구는 전 양식의 주된 특징이기도 하다. 전은 인물의 모든 행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상을 부각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만을 정선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주제를 구현하는 대표적 양식이기 때문이다.

4. 전 양식 변용으로서의 『거룩한 생애』

(1) 역사의 궤적 기록

전 양식은 원래 사실의 전달을 본령으로 삼는 ‘사실’의 문학이었다. 이러한 ‘紀實’(사실을 기록함)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하자.

“처음에는 이 傳 가운데에 陽坡 鄭太和의 행적이 한 조항 들어 있었지만, 그후에 <승정원일기> 및 이기남이 남긴 서찰에 의거해 그 실상이 그렇지 않은 줄 알게 되었다. 또 지금의 봉조판서 남구만과 이조판서 이민서 두 분이 힘써 그 서술이 爽實(상실)임을 말하였다. 대개 이 傳은 처음에 삼家の 행장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니, 정태화의 조항은 사실 南公의 부친이 찬한 <오학사행장>에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공의 말은 이와 같다. 대개 당시의 일을 3家の 제자로서 목도한 자는 없다. 생각건대, 그것이 傳聞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믿을 만함이 <승정원일기>나 이기남이 눈으로 본 것을 쓴 서찰, 그리고 南·李 두 공의 말만 못할 듯하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³¹⁾

이 자료는 송시열이 쓴 전 가운데 나중에 사실과 다른 증거가 발견되자 이를 즉시 삭제해 버렸다는 내용의 글이다. 사실과 다른 증거가 발견되는 즉시 내용을 변경하는 태도에서 전이 얼마나 사실의 전달을 중시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기록의 대상은 열녀라든가 선

31) 송시열, 「삼학사전」, 『우암집』, 박희병, 앞의 책 22면에서 재인용.

비, 이인(異人)과 같은 실재했던 개인이다. 송시열이 남긴 위의 글 역시 개인에 대한 기록이 전의 중요 기능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에 비해 『거룩한 생애』에서 기록의 주된 대상은 개인에서 역사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특히 간난이의 결혼 이후 행적을 그리는 대목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제주도 잡녀 조합의 결성 및 활동과 간난이의 연결, 대판 구리 공장 파업과 간난이 시숙의 연결 등 간난이와 그 주변 인물의 행적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당시 역사의 흐름을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역사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자식들이 태어난 직후 죽어버리는 간난이의 개인적 불행을 서술하는 장면은 일제 말 극에 달한 공출이라는 역사와 연결되어 불행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러나 달이 차 몸 밖에 나온 아기는 못 먹어서 그런지 아흐레만에 속절없이 시들고 말았다. 그리고서 석 달이 채 못 되어 또 임신했다. 시절은 갈수록 궁핍해져 갓난아기가 살아가기에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점심 굶기는 예사이고 하루 두 끼 마저 굶는 집들이 늘어났다. 낱알 곡식은 공출로 빼앗기고, 밀기울 범벅, 콩깍묵죽, 보릿겨죽이 밥상에 올랐다. 간난이는 두 번째 아기도 실패하고 말았다. 자식농사 반타작밖에 못하는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언달아 두 번 실패하고 보니, 역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파래 섞인 콩깍묵에 서러운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기막힌 세상에 그 아기들은 무엇을 먹겠다고 태어났던가.”(220)

역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은 특히 해방 이후의 사건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일관되게 4·3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복원하고자 노력했던 현기영 개인의 관심이 작용하고 있기에 더 그럴할 것이다.

“중산간지대 이백여 마을이 불에 타면서 한라산은 살육의 피구름으로 덮였다.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남편 내보라, 아들 내보라 하더니 굶기야는 입산한 남편 대신 아내가 죽어야 하고, 입산한 아들 대신 에미 애비가 죽어야 하

는 잔혹한 대살(代殺) 행위가 자행되었다. 젊은이가 있는 집은 그가 붙잡혀 죽어 야만 남은 식구들이 안전했다. 입산도 두렵고 마을에 있기도 두려워 어중간한 곳에 피신한 청년들도 입산자로 간주되었다. 물로 갇힌 섬중이라 입산이 아니면 숨을 데가 없어, 어제 본 사람 오늘 없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없었다. 도처에 때 주검들이 늘비하고 핏물이 고랑을 파고 흘렀다.”(229)

결국 기실(紀實)이라고 하는 전의 기능은 『거룩한 생애』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나, 기록의 대상이 개인의 행적에서 역사의 궤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간난이와 주변 인물이 겪는 사건을 통해 역사의 궤적을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집합적 주체의 형상화

일반적으로 전은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을 입전 인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전에서 관심의 대상은 충신, 열사, 효자, 열녀로서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는 평범한 제주도의 잡녀를 중심 인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전 대상과는 다르다. 비록 간난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물질 솜씨를 보여주고 효성이 지극하다고는 하나 간난이는 평범한 '민중'의 하나일 뿐이다. 일부 전에서도 뛰어난 재주나 덕성을 가졌으나 그 신분적 미천함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에 인멸될 운명에 처해 있거나, 일사(逸士)로서 높은 뜻을 품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해보지 못한 채 불우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인물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선행과 미덕'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신분이나 불우한 처지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인멸될 운명에 처해 있는 특출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간난이와는 구별된다.³²⁾

32) 조선 후기의 전은 관심의 대상을 전통적인 충신, 열사, 효자, 열녀 등에서 농민, 기녀, 거저 심지어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이 근대적인 의미의 소설로 변모해가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데, 조선 후기의 전은 초기 전과 형식이나 내용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전의 소설화 경향

보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냐가 아니다. 『거룩한 생애』는 개인이 아닌 집합적 주체로서의 '민중'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다시 말해 입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개인' 아니라 '집단'이다. 작가가 이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한번은 썰물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혼자 떨어져 물질하다가 하마터면 먼 바다로 끌려갈 뻔했는데, 그때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 다른 잠녀들한테 얼마나 아단을 맛았던지! 오리떼처럼 항시 무리짓는 것이 잠녀들의 존재방식이었다. 서로 삼촌, 조카라고 부르면서 혈족같이 뭉쳐져 있어서, 밭농사에 품앗이하기, 관혼상제 기부금 내기, 그리고 심지어 어업조합의 부당 행위에 항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집단 행동이 아닌 게 없었다.”(205)

집합적 주체에 대한 관심은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룩한 생애』에서 이름이 제시되는 인물은 오로지 '간난이' 하나 뿐이다.

“그녀의 이름은 간난이었다. 성은 양씨, 이름은 따로 짓지 않고 그냥 간난이라고 불렀는데, 호적 이름은 그것은 한자 표기인 '양유'였다.”(204)

그런데 사실 '간난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 '그녀'나 '그' 같은 대명사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소설에는 '개인'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진 등장 인물이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간난이의 남편 역시 단 한 차례도 이름이 제시되지 않은 채 그냥 '남편'으로 불릴 뿐이다. 심지어 간난이가 부부로서 인연을 맺게 되는 첫 만남의 장면에서조차 그는 다음과 같이 이름 없는 '김직원의 장손'으로 제시될 뿐이다.

“중신어미가 들락날락하더니, 뜻밖에도 글 읽는 선비 집안인 김직원 댁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신랑감은 연전에 별세한 김직원의 장손이었다. (중략) 신랑은 조

부와 숙부의 대내림을 받아 암전한 공부꾼이라는 소문이었다.”(207-208)

『거룩한 생애』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혹은 잡녀들, 청년들, 토벌대일 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개인의 구체적인 이름에 대한 배려는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관심과 맥을 같이한다. 특정한 개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명명되듯이 소설가는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개인’을 창조한다.³³⁾ 이에 비해 현기영은 『거룩한 생애』에서 등장 인물의 이름을 대거 생략함으로써 그들을 개인화된 실체로 설정하지 않고 그들의 집단성 혹은 집합적 민중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한다. 다른 근대 소설이 대부분의 군소 인물들에게도 세심하고 사려 깊게 특색 있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명칭의 생략이 갖는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결국 명칭의 부재는 이 소설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5. 결론 - 양식의 기능 전환과 법고창신(法古創新)

지금까지 필자는 『거룩한 생애』에서 나타난 전 양식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고창신’의 글쓰기가 전통 양식에 대한 ‘활용’과 ‘변용’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능함을 살펴보았다.³⁴⁾ 여기서

33) 근대 소설에 등장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명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언 와트(전철민 역), 앞의 책, 28-31면을 참조할 것.

34) 평전을 활용하여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격 성장을 꾀하는 글쓰기에 대한 연구, 자전적 서사물에 드러난 장르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논의 그리고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조건 속에서 고전 소설이 개작되는 사례를 검토하면서 정전의 변형 양상을 추적하고 있는 논의는 본고의 문제 의식을 부분적으로 선취하고 있다. 임경순, 「비평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쓰기 교육 - 평전(評傳)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2002. 12, 최인자, 「새로운 자아관 확립과 자서전 장르 다시 쓰기」,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2001, 황해진, 「춘향전 개작 텍스트의 서사 변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러한 '활용'과 '변용'의 개념을 '기능 전환'이라는 보다 정치한 개념으로 다듬기 위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던 외국의 사례를 하나 참조해 보자. 그것은 1930년대 독일에서 표현주의 문학을 둘러싼 논쟁이다.

당시 표현주의 문학의 성격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에서 루카치는 모더니즘 문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내적 독백, 르포르타주, 몽타주와 같은 기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기법이 현실의 여러 요소를 기계적으로 조직하는 구성 원칙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의 총체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리얼리즘의 형상화의 원칙에 비해 이념적으로 파괴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³⁵⁾

이에 대해 브레히트는, 리얼리즘은 특정 양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현실 세계에 대한 적극적이며 호기심 가득 찬 실험적 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전복하려는 태도임을 내세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브레히트가 20세기 상황에 대응하여 발전된 모더니스트의 문학 기법을 리얼리즘의 목적에 맞게 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문학의 형식은 여타의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생산 관계 내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는 것에서 구제되어 보다 진보적인 목적에 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 형식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들은 기능에서 변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적 독백, 몽타주, 소격 효과 등을 사용하는 리얼리즘의 작가들은 모더니즘 작가들에 결부되어 있는 절망적이고 신화적인 외양들을 제거해야 한다.³⁶⁾ 브레히트는 이를 '형식의 기능 전환'이라는 용어로 정식화한다.

브레히트 식으로 말하자면, 전고 나아가 어떤 전통 양식도 새로운 의미 생산과 표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옛것을 법으로 삼는 행위가

35) 자세한 사항은 게오르크 루카치 외(홍승용 역),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87을 참조할 것.

36) Eugene Lunn, *Marxism and Modern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88.

새로움을 저절로 보장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형식을 활용하되, 이것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기능 전환의 문제 의식은 비록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현대 문학의 경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관습을 바탕으로 한 새로움'의 창조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³⁷⁾

여기서 '옛것'(古)을 반드시 우리의 주류 전통에 국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는 제안을 하고 싶다. 전 세계, 좁게는 동북아시아의 민중적 '유산'(Erbe) 역시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광대한 자원이 될 수 있다.³⁸⁾ 약간은 공상적으로 들리는 이 발상이 현재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문화 현상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영국의 소설가 톨킨(Tolkien)이 만들어낸 거대한 판타지의 세계는, 그가 대학 시절 매혹되었던 핀란드의 구비 서사시 『칼레발라』에서 출발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말이다. 이것은 서구의 사례가 아니냐고, 영국과 핀란드는 그 문화적 동질성 때

37)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일찍이 문학의 진화가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방법을 낳지 않고 고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서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티니아노프는 진부한 기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고, 자동화되지 않은 맥락 내에서 반복됨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을 내용음으로써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서는 빅토르 어얼리치(박거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지성사, 1983, 331-333면을 참조할 수 있다. '낡은 요소들을 재분류' 또는 재조직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움이라는 형식주의자들의 구호는 '기능 전환'이라는 브레히트의 문제 의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토니 베네트(임철규 역), 『마르크스주의와 형식주의』, 현상과인식, 1983을 참조할 것.

38) 이는 '표현주의 논쟁'의 또 다른 당사자 블로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하다. 블로흐에게 유산 문제란 다양한 지역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국제주의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전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적 과거를 이용하는 것과 관계된다. 유럽의 전통에서 19세기 리얼리즘의 작가들만을 중시했던 루카치 식으로 사고한다면, 새로움을 창조하는 데 있어 참조할 대상은 바로 전대의 주도적인 양식들로 좁혀진다. 그에 비해 블로흐의 방식으로 사고한다면, 다양한 민중 혹은 농민 문화, 나아가 '원시적' 예술을 포함한 전(前)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유산'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그만큼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블로흐, 「표현주의에 대한 논의들」, 게오르크 루카치 외,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87.

문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사 무가를 창조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분단의 비극을 조명하고 있는 황석영의 소설 『손님』의 성취라면 괜찮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초록〉

글 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에 나타난 전(傳) 양식 활용을 중심으로 -

김 성 진

창의적 표현과 관습적 표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 않다. 전통적 글쓰기의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의미와 양식을 발전시키는 글쓰기의 태도를 박지원의 법고창신(法古創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기영의 단편 소설 『거룩한 생애』가 전(傳) 양식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거룩한 생애』의 중요한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제 시대에서 해방 직후에 이르는 시기를 살아갔던 한 제주도 여성의 일대기를 단편 소설에 담고 있다. (2) 주인공의 전체 생애에서 당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만을 압축해서 전달한다. (3) 세부에 대한 묘사를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거룩한 생애』가 한국의 전통적 서사 양식인 전(傳)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생애』는 특정 개인보다는 집단적 주체로서의 제주도 민중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傳)과 구별되는 새로운 미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법고창신은 전통 양식에 대한 '변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글쓰기 형식을 활용하되, 그것에 새로운 미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기능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능 전환'의 문제 의식은 관습을 바탕으로 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글쓰기를 해명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글쓰기, 관습, 창의적 표현, 법고창신, 전(傳), 기능 전환,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

〈Abstract〉

**A study on a relation between tradition
and creativity in Writing**

- an application of Jun(傳) style in Hyeon Ki-young's
「Keorukhan Saeng-ae」 -

Kim, Sung-jin

Creative expressions and conventional expressions are not on the opposite site. Bak Ji-one proposes an attitude for writing, Bupgochangshin(法古創新), that develops new writing styles by discovering originalities based on traditional writing styles.

This paper aims at studying an application of Bupgochangshin(法古創新 : developing the originality from the tradition) by means of investigating the writing style of Hyeon Ki-young's short story, 「Keorukhan Saeng-ae(Sublime Lifetime)」 which succeeds to the Jun(傳) style as well as seeks diversities on the style. The characteristics of 「Keorukhan Saeng-ae」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 (1) it includes a Cheju woman's whole life who had lived from the last part of Japanese invasion period to the Independent period, (2) it describes only history-related significant occasions as a condensed form, and (3) it minimizes the descriptions of the details. These characteristics prove that 「Keorukhan Saeng-ae」 succeeds to the Korean traditional narrative style, Jun(傳). However, it realizes distinctive aesthetic effects on the point that it

makes a record of the Cheju people's life as a group, not of a personal life.

Bupgochangshin is achieved through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styles. We can name it 'Transformation of function', an attempt to apply the traditional writing style with producing new aesthetic effects. The concept, 'Conversion of function' would provide a clue for analyzing the writing style to pursue the originality on the basis of traditions.

【Key word】 Writing, tradition, Creative expressions, Bupgochangshin(法古創新 : developing the originality from the tradition), Jun(傳), Transformation of function, Hyeonkiyoung 's 「Keorukhan Saeng-ae(Sublime Lifetime)」